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축사진의 촬영포인트

전통건축에서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촬영 포인트를 알아두어야 한다.

현대건축인 경우 고층빌딩에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이어 오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민가에서부터 서원, 사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 촬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방법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건축사진의 분류

- 시대적 분류 - 고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
- 지역별 분류 - 경상도지방, 전라도지방, 제주도지방, 강원도지방, 서울·경기 중부 지방, 평안도·함경도, 북한지방
- 건축재료별 분류 - 동, 나무, 흙, 금속, 스테인리스, 유리, 알루미늄, 기타
- 용도별 분류 - 사무소건축(오피스빌딩), 공공건축(관공서, 은행), 종교건축(교회, 성당, 사찰, 성공회), 학교건축(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교육 연구시설, 주거건축(민가, 초가, 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별장) 산업 건축(공장, 공업단지 시설), 스포츠·레저 시설(운동 경기장, 스키장, 골프장, 헬스 클럽, 수영장), 실내 사진(카페, 레스토랑, 한식당, 일식당, 예식장),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 기타 분류 - 환경, 도시, 조경, 야경, 공사사진, 준공사진, 외부전경, 인테리어, 디테일, 모형사진, 투시도·조감도



1.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에서 바라본 한국의 자연산세와 어울리는 모습
 2. 충남 논산 윤중고택
 3. 함천호반의 자연과 어울리는 한국의 전통마을
 4. 서울 종묘 영녕전

시대적 분류

전통건축

최근 들어 우리는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애호가들에게도 사진의 주요 테마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름답고 섬세한 건축양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훌륭한 문화재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전달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고건축의 사진 촬영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연과의 조화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통공간에 대한 이해는 우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다.

형태적인 건축물로 표현되는 것 보다는 형태와 공간의 조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여러 곳의 고건축물들을 답사하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지형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본 특징이다. 특히 주변의 산세와 하천 등을 최대한 이용한 건물들의 배치는 오늘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건축들은 여러 분야별로 나뉘어 지는데 민가 특히 초가나 기와집 그리고 사찰 성곽 등 우리나라 전체가 문화재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 흑백과 컬러로 나누어 지는데 고건축에서는 보통 흑백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 더 좋은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전통건축들도 기본적인 촬영방법은 현대건축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정확한 사진기술과 풍부한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5.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라투레트 수도원 전경
6. 르 코르뷔제의 롱상성당 전경

건축사에게 설계의도를 들어볼 수 없는 고건축에서는 그 건물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건축양식이 촬영하는데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전통건축물들을 보면 삶의 공간인 민가에서부터 양반가 집들과 정자들이 있으며 교육공간인 서원이나 향교 그리고 사찰과 같은 여러 건물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건물들을 촬영하는 데에는 대지로부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진에 담아낼 수 있지만 사찰이나 여러 건물로 구성된 것들은 전체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주변의 높은 산에 올라 가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과 같은 계절은 모든 것을 보여주기 힘들고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겨울철이나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평일이 사진 찍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겨울철에 주위의 나무들이 떨어져 건물 전체가 잘 보여지고 맑은 공기가 어두운 부분들을 자세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고건축 촬영에서는 집이나 건물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나 양장을 입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색한 사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 되도록 어울리지 않는 풍경들이 함께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건물의 스케일감을 알기 위해 고건축물의 주변에 한 두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은 평면작업으로 평면위에 입체적인 건물들의 공간들을 보여주기 위해 건축공간에서의 빛의 흐름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마가 깊은 고건축물의 촬영에서 약한 햇살이나 흐린 날의 부드러운 확산광이 건물 전체에 닿아 처마밑의 표현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맑게 갠 하늘이라도 지면의 반사가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작은 건물들은 후래쉬나 레프트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사진은 되지 못한다.

고건축물들은 지방에 따라 대부분 먼 곳으로 여행해야 함으로 가기 전에 전체 배치를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무작정 찾아 간다고 좋은

사진을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날씨의 변화나 혹시 문을 잠궈 놓는 일로 먼 곳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사전협조가 필요하다. 고건축 촬영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채나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안마당과의 관계와 오버랩이 중요한 앵글들이며, 아침부터 비쳐오는 빛의 흐름은 사진촬영에 매우 중요하다.

현대건축

현대건축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주거공간이나 여러 건축물들의 계획안들은 과거의 공간이 빛을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빛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현대건축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빛의 이용방법에 따라 공간의 표현 방법도 조금씩 차이를 지니게 되고 얼마나 좋은 전망을 끌어들이 수 있는냐에 따라 건축물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대건축물을 잘 찍으려면 일반적으로 낮에 찍는 사진보다는 저녁 해질 무렵이 좋다. 건물 안에도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안과 밖이 같은 빛의 밸런스를 만들어 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형 35mm 리보다는 중형이상 대형카메라를 사용하면 더욱 질감이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특히 오피스건물을 촬영할때 건물의 왜곡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퍼시픽스(Perspective Control lens)를 써야 하는데 만일 P.C렌즈가 없을 때에는 촬영하려는 건물의 건너편에 위치한 같은 레벨의 건물 높이에서 촬영하면 아이 레벨보다는 더욱 좋은 설명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다